

교회소식 |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오중보기도 - 매일 정오 12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1. 감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최승일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 릴루엣 원주민 선교 참가 신청서 접수

8월 4일(주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릴루엣 원주민선교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3. 원주민선교를 위한 연합 수요기도회

6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쉼 PA강당에서 있습니다. 10238 168 St, Surrey
(수요기도회는 연합기도회로 대신합니다)

4. 새 가족 목장편성

- 이승희집사 : 아멘목장(목자/박미란집사)
- 김지혜성도, 최윤주성도 : 디딤돌목장(목자/최자은집사)

▶ 교우소식

- 다과 : 친교부 / 다음 주 : 장혜성집사(박청아전도사) 가정

▶ 6월 목회일정

- 6/5(수)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 연합 수요예배
- 6/30(주일) 성찬예배
- 6/30(주일)-7/1(월) 청년 여호수아 목장 1박2일 수련회 / 미션, 갈상자 하우스

■ 예배위원안내

날 짜	1부 기도	2부	헌금위원	안 내
6월 2일	최슬비	김정미	김영자	6월 김경이
6월 9일	김만수	도유경	김정미	

- 공동기도제목 12시 정오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캐나다 원주민 사역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축복하여 주소서
성도를 위해	엄의식집사(유영주권사, 엄태연 태건) 가정의 건강과 믿음을 지키소서

섬기는 사람들	협력 선교지 및 선교사
담임목사 정 병 완	캐나다 릴루엣 원주민(이준호 선교사)
부목사(유스) 김 상 훈	북 한 First Steps(수잔 리치 Susan Ritchie)
전도사(키즈) 장 호 선	에디오피아 Petros Network
전도사(찬양) 박 청 아	

선한 이웃 선교로 통로가 되는 나무십자가 공동체



2019년 신앙주제

내 백성을 위로 하라!

Comfort my people.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주일예배

제 7권 22호

2019. 6. 2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2시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찬 송 (Praise)	찬송가 505장	경배와 찬양
회중기도 (Prayer)	최슬비자매	김정미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교회소식 및 성도의 교제	
다음세대 축복기도 (Blessing)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봉 헌 (Offering)	찬송가 505장	
말씀선포 (Sermon)	누가복음 15:21-24(신약 202쪽) ‘다시 얻었노라’ 최승일선교사	
*파송찬양 (Closing song)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축 도 (Benediction)	최승일선교사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오전 6시
“히브리서 강해”
인도: 담담 교역자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열왕기상 강해”
인도: 담담 교역자

교회학교예배

주일 오후 2시
Kid(드림, 비전목장)
Youth(다니엘목장)
인도: 담담 교역자

 나무십자가한인교회
WOODEN CROSS KOREAN CHURCH

Tel. 778.871.7740 / www.vanwckc.com

교회 : 1460 LANSLOWNE DR. COQ

שלמחן מלגא : 2288 ELGIN AVE PO. CCR

〈우리 안에 다섯 살 아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섯 살 아이'가 들어있다."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대화>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칠십 팔십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안에는 다섯 살 아이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을 대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다섯 살 아이는
늘 사랑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받기도 쉬운 데요.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만을 원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건 마찬가지이고,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부하직원은 상사에게
곳곳에서 우리 안에 다섯 살 아이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젠버그는

'감정의 나이는 늘 다섯 살 꼬마이고,
이 꼬마는 결코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차마 그 다섯 살 아이의 본심을 내어놓는 걸
감추려고 애쓰는데,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다섯 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른이라고 어른처럼 대하지 마시구요.
그 안에 다섯 살 아이의 기분도 좀 좋게 해주든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독일 Freiburg 자유성한인교회 김중현목사님의 글입니다.

♣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

월요일 - 터키 정부의 강력한 이슬람화 정책과 반정부 지식인 탄압정책으로 많은 지식인이 자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가 국민의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소서.

화요일 - 8월 4일 주일 오후부터 7일 수요일까지 릴루엣 원주민 단기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단기선교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참여자들이 기쁨으로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소서.

수요일 - 아보츠포드에서 원주민 사역 중인 이상렬선교사님이 원주민들 수입사업의 일종으로 카누제작을 돕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봉합수술을 위해 출국중인데, 상처치료가 잘 되어 선교사역에 복귀할 수 있게 하소서.

목요일 - 시리아 북주에서는 터키가 지원하는 무장 단체의 활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가 부당한 시리아 내전 개입과 무장 단체 지원을 중단하게 하소서.

금요일 - 이집트에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건축되어 복음이 더 잘 전파되게 하소서.

토요일 -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병원에 의약품이 없어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망소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구호품과 의약품이 짐바브웨에 공급되게 하소서.

- 매일성경 인용 -